

무송현성전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에 의하여 진행된 전투

박 일 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무송현성전투승리 8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수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강적들을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다승하심으로써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세상사람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신뢰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탁월한 령군술로 수많은 전투들을 승리에로 조직지휘하시여 일제에게 커다란 참패를 안기신 회세의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한 령군술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시고 일제에게 대참패를 안기신 수많은 전투들가운데는 주체25(1936)년 8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무송현성전투도 있다.

무송현성전투는 전투의 발기로부터 전투조직과 결속에 이르기까지 주체적인 유격전법을 구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무송현성전투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결심과 발기에 의하여 진행된 전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백두산근거지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송현성의 적들을 칠것을 결심하시였다.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것은 적통치구역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였다.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않고서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도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인민대중의 원호사업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없었다.

당시 무송현성은 백두산서북부지구에 있는 적의 군사정치적중심지의 하나였으며 거기에는 당시 7 000여호에 2만 8 0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있었다.

무송현성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두도송화강과 이 강으로 흘러드는 송강하의 합수목에 위치한 곳으로서 림강, 몽강, 화전, 안도현성들과 200여리안팎의 거리를 두고 대도로로 련결되어있었다.

일제는 무송현성의 이러한 위치를 고려하여 이곳을 《동변도치안숙정》의 중심거점의 하나로 삼고 여기에 관동군, 위만군, 경찰대, 기병대, 《유격수색대》 등 수많은 무력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있었다. 그리고 현성에는 견고한 나무울타리와 토성을 쌓아놓고 그 둘레에는 깊은 물홈을 파놓았으며 토성의 네귀와 소남문, 대남문을 비롯한 동, 서, 북문에는 견고한 포대를 구축하였다. 적들은 동산에도 포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1개 소대의

병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밤낮으로 경계를 강화하고있었다.

적들이 군사정치적으로 매우 중요시하고있는 무송현성을 공격하여 적들을 소탕하여 야 놈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백두산서북부일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의 수중에 장악하여 백두산근거지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무송현성의 적들을 소탕하기로 결심하시였다.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일관하게 견지하신 전략적로선이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 자체의 사상적제한성과 동요로 하여 반일부대들의 활동은 하강선을 굽고있었다.

구국군의 주력을 이루고있던 왕덕림, 당취오, 리두, 소병문 등의 부대들은 이미 산해관이나 또는 쏘련을 거쳐 관내로 퇴각해버리였고 왕전양부대, 전신부대와 같은 견결한 반일무장부대들도 마지막 한사람까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혈전을 거듭하다가 적들에게 피멸당하였다.

청초부대, 왕옥진부대와 같은 일부 부대들은 회기를 들고 귀순하였다. 무송과 림강현경에 있는 만순휘하의 군소부대들과 자매부대들에서도 귀순자가 늘어났으며 적들은 1935년 가을에 초수탄에서 마흥산부대의 투항병 90여명을 환영하는 귀순식놀음까지 벌렸다.

구국군의 나머지력량은 작은 집단으로 분산되어 깊은 산중에 들어박혀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으며 일부는 토비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백두산근거지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하강선을 굽고있는 반일부대들의 활동을 상승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공동의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시고 전투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부대지휘관들과 협동작전토의모임을 여시고 무송현성의 적들을 칠것을 발기하시였다.

무송현성전투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찰에 기초하여 직접 세우신 면밀한 전투계획에 따라 진행된 전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투에 앞서 지하혁명조직들을 통하여 무송과 송수진을 비롯한 그 일대의 적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시고 친히 정찰조를 파견하시여 그것을 재확인하신데 기초하여 전투계획을 빈틈없이 세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에 기초하여 8월 16일 조선인민혁명군 및 반일부대지휘관들과의 작전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전투의 목적과 의의, 전투에서 적용하게 될 전술들과 협동작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공격의 주타격대상인 동산포대를 점령하는것과 함께 대남문, 소남문방향으로 공격할데 대한 전투임무를 하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투임무를 하달하시면서 전투진행과정에 성시주민들의 생명재산을 절대로 침해하지 말며 군민관계에서 오점을 남기지 말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신 다음 공격개시시간을 17일 새벽 1시로 정하시고 위만군중대안의 반일회성원들로 하여금

아군의 성시공격시간에 맞추어 성문들을 일시에 열어놓게 하시였다. 그리고 현성방어에만 매달리고있는 적들의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을 파견하여 전투개시전날 송수진과 만량하(만량향)를 습격하도록 하시였다.

무송현성전투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만순부대 등 여러 반일부대들이 참가하였다.

무송현성전투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완강한 의지와 림기용변의 지략으로 유리한 전투정황을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지휘하시여 승리적으로 결속하신 전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투에 앞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전법을 적용하십시오으로써 무송현성의 주되는 적을 성과적으로 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작성하신 전투계획에 따라 무송현성에 대한 공격에 앞서 16일 밤에 일부 력량으로 하여금 송수진의 적집단을 타격하게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한 소부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전투계획에 따라 이곳을 들이쳐 적들의 주목을 이 방향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주력부대가 무송현성을 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전투정황을 완강한 의지와 림기용변의 지략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전투를 령활하게 지휘하시였다.

무송현성전투는 첫걸음부터 엄중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것은 반일부대들이 지정된 집결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였기때문이었다. 리홍빈부대는 지나친 열성을 내어 집결지점인 첨창구에 들리지도 않고 동문으로 직접 갔으며 만순지휘하에 있는 부대들은 약속된 시간이 한시간나만 지났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만순부대의 지각으로 하여 전투는 초기계획대로 할수 없게 되었고 성문들앞에서 약속된 신호를 기다리며 보초를 서던 위만군중대의 반일회성원들은 교대시간이 되자 할수 없이 기관총의 기관실에 모래를 쏟아넣고 초소에서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성문을 은밀히 열고 성안에 돌입하여 적들을 일격에 섬멸하려던 작전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선봉에 서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것을 지휘관들에게 호소하신 다음 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투에서 주타격대상을 바로 정하시고 거기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도록 하십시오으로써 전투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주타격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은 그 승리를 담보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무송현성과 같이 적이 일본군수비대, 위만군련대, 경찰대, 무장자위단 등 여러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있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송현성의 적들가운데서 가장 악독하고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추고있는 일본군수비대를 주타격대상으로 규정하시였다. 그리고 놈들이 배치되어있는 현성남쪽에 대한 공격을 전투력이 제일 강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적의 기본집단을 격멸소탕함으로써 기둥을 잃은 다른 적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는 소남문가까이에 지휘처를 정하

시고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제7련대 제4중대는 먼저 동산포대에 은밀히 접근하여 불의적인 습격으로 총 한방 쏘지 않고 적을 감쪽같이 생포하고 포대를 장악한 다음 소남문방향으로 드세게 공격하였으며 다른 부대들도 각기 자기의 행동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변천되는 정황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판단에 기초하여 주도적인 철수를 단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견고한 진지에 의거하여 저항하는 적을 방어시설이 없는 지대에 끌어내어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소멸하도록 하시였으며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순간에는 전 대오가 반돌격으로 넘어가 전투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할수 있게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육탄으로 첫 돌과구를 열어놓은 그 시각에 북문으로 공격하던 만순부대가 적의 포성에 겁을 먹고 명령없이 퇴각하였으며 동문을 담당했던 리홍빈부대도 적들의 반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뒤로 밀리기 시작하여 그곳에 있던 적들이 소남문쪽으로 증강되었으며 날까지 밝아와 정황은 매우 불리하게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부대들이 퇴각을 시작한 이 기회에 유인전술을 써서 주도권을 틀어쥔것을 결심하시고 짙은 안개를 리용하여 각 부대들을 동산과 소마록구릉선으로 철수하여 매복진을 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잘루목을 차지한 다음 아군부대들을 량쪽에서 타격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꿰뚫어보시고 전투후의 아침식사준비를 하고있던 녀대원들로 하여금 잘루목을 먼저 차지하려는 적들을 모조리 소멸해버리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불리하게 조성되였던 전투정황은 아군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이날 적들은 력량상우세를 믿고 비행기의 엄호와 포사격의 지원밑에 과장식돌격을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섬멸적타격을 받고 격퇴되였다. 적들은 저녁때가 되어오자 공격을 단념하고 산기슭에 붙어 증원부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차지한 계선을 유지하기 위한 지연전술로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황을 예리하게 판단하시고 기진맥진한 적들에게 숨돌릴틈을 주지 않고 전투의 주도권을 계속 확고히 틀어쥐기 위하여 전 부대에 반돌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맹렬한 돌격에 의하여 일제수비대는 몰살되고 겨우 살아도망친 놈들은 10명밖에 되지 않았다.

아군부대들은 이 전투에서 300여명의 적을 살상하였으며 적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안겨주고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전투조직과 지휘, 탁월한 전법은 무송현성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반일부대들의 힘의 원천이었으며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그들이 시종일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력량상 우세한 적을 성과적으로 타승할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였다.

이와 같이 무송현성전투의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